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FACES)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金秀娟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金得星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Lecture : Soo-yu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Deuk-sung Kim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FACES II & III do not capture the high extremes of the dimension, and are linear rather than curvilinear measure. FACES IV is the latest revision of FACES series and can capture two extreme dimension of Circumplex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constructed FACES using by FACES II, III, IV. Factor analysis showed that Cohesion and Adaptability consisted 3 factors (disengaged, connected, enmeshed/rigid, flexible, chaotic). Extremes on each dimension conceptually were opposite and they were uncorrelated with each other. FACES effectively predicted family function. Reliability coefficients of subscales ranged from .61~.85. Reconstructed FACES ha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construct and criterion related validity.

I. 문제의 제기

건강한 가족기능을 개념화하여 査定하는 모델의 필요성은 가족학 연구 분야와 가족치료 임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모델 개발에 대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임상 분야에서 가족 査定 모델은 가족 자신의 내부자 관점과 임상가의 외부자 관점을 통해 역기능적인 가족의 역동성을 포착하여 치료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가족 이론 분야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방법을 개발하며 나아가 실제 치료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1970년 후반부터 가족査定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모델이 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한 순환모델이다. 가족기능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응집과 적응을 설정하고, 두 개념을 주축으로 순환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개념들은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여 많은 학자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환모델에 대한 비판적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가 순환모델의 곡선성 입증의 실패이다. 즉 과다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응집과 적응을 지닌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보인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아울러 그 원인이 자기보고식 척도인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이하 FACES로 칭함)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ACES는 간단하고 측정이 용이한 장점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척도가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응집과 적응의 극도로 과다한 차원(매물, 혼돈)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척도의 선형성으로 인해 Olson(1991)은 FACES III에 부합하는 3차원 순환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외부자 관점의 임상측정 방법(CRS)을 통해 곡선성 검증이 가능하고, 양극 척도(bipolar format) 응답 방식같은 척도개발의 제안(Perosa & Perosa, 1990;

Pratt & Hansen, 1987)에 따라 최근 FACES IV가 개발되었다. FACES IV는 응집 차원의 극단 수준인 유리과 매물, 적응 차원의 극단인 경직과 혼돈의 4개 영역에 대해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FACES 척도는 선행 연구의 비판점을 받아들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된 척도이며 각 개정판마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FACES II는 III에 비해 신뢰도와 동시적 타당도가 높으며(Hampson, Hulgus & Beavers, 1991). 보다 선형적이어서 기능적인 가족을 측정하는데 유리하다. FACES III는 수정된 응집의 정의(자율성 개념이 제외)에 따라 척도가 구성되었고, 부분적으로 곡선적인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극단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FACES IV는 앞서서도 소개하였듯이 4가지 극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이전의 척도를 무시하기 보다는 각 개정판의 척도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여, 척도가 가지는 장점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FACES II, III, IV가 미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라 할지라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때도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 가족 문화의 경우 미국과 한국은 서로 구별될만한 독특한 특징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인 반면 한국은 개인이나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강한 문화이다. 근대화 이후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많이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식가운데는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가족 기능에 대한 기준에는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다분히 개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족기능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문화에 맞게 고안된 척도를 아무 검토없이 우리나라 가족에 적용하는 것은 해석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FACES II, III, IV 척도를 종합하여 새로운 응집과 적응 척도를 구성하고

이를 한국 가족에 적합하게 재표준화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순환모델의 특성

순환모델에서 응집, 적응 및 의사소통은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세 차원으로서 기존의 개념들을 전문 용어로 새로이 구성한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Olson, Sprenkle 및 Russell (1979)은 가족치료와 관련된 문헌에서 가족 기능에 관련된 50여개의 개념들을 추출하여 군집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거쳐 귀납적으로 세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순환모델의 세 차원은 가족체계를 설명하는 다른 모델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많은 학자들은 가족내의 정서적 관계를 가족의 주요한 기능으로 다루어 왔다. Kantor와 Lehr(1976)의 “거리감 조정(distance regulation)”, Minuchin(1967)의 “유리된 가족과 매몰된 가족”, Hess와 Handel(1959)의 “분리 혹은 연결의 패턴” 등은 균형적인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Olson, Russell 및 Sprenkle(1983)이 정의한 응집은 가족간의 친밀감,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으로서 가족간의 상호작용 과정 및 결과를 결정짓는 1차적 기능(Galvin & Brommel, 1986)을 말한다. 응집은 외적으로는 가족 경계선의 침투성과 내적으로는 가족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응집의 수준은 응집이 지나치게 낮은 유리된 가족, 적당히 낮게 분리된 가족,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 응집이 지나쳐 매몰된 가족으로 구분되어진다.

응집이 분리나 연결 수준에 있는 가족은 독립과 연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가족 기능이 원활하고 개인의 발전도 최적의 수준을 이루게 되며,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Galvin & Brommel, 1986; Olson et al., 1983)는 것이다. 극단(유리와 매몰)의 가족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매몰된 가족의 경우 과도한 동일시로 인한 가족원의 개인성 무시와 사적 요소의 차단, 지나친 소속감과 충성심 요구와 같은 역기능을 보인다. 반면 유리된 가족은

지나친 개인성으로 인해 애착과 가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그로 인한 대인관계 능력의 약화같은 부작용을 보인다. 따라서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정서적 유대는 가족기능에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양방향성이다.

한편 체계 이론에서는 가족이 변화에 저항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교정적 과정인 안정지향과정과, 체계의 형태, 구조, 상태를 보다 발전시켜 성장시키려는 변화지향과정 사이의 균형을 통해 환경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원활히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Olson 등(1983)은 가족의 변화와 유연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적응을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순환모델의 적응(adaptability)은 선형적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인 Beavers의 적응(adaptation)과 혼동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992년 이후에 Olson은 적응을 1차적 변화(first-order change)의 곡선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정의역시 변화의 능력에서 변화의 양으로 다시 규정하였다. 즉 지도력, 역할관계, 관계규칙에서의 변화의 양으로 재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적응보다는 융통성(flexibility)으로 사용하길 권장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응으로 사용하겠다. 적응은 변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적응이 지나치게 낮은 경직된 가족, 적당히 낮은 구조적인 가족, 적당히 높은 융통적인 가족, 적응이 지나치게 높은 혼돈된 가족의 네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즉 적응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직된 가족이나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이고, 적응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인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Galvin & Brommel, 1986; Olson et al., 1983)는 것이다.

순환모델의 세번째 차원은 의사소통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응집과 적응이 균형적으로 가족체계를 움직이게 하며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응집과 적응의 균형적인 수준으로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축소시키는 것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불만족스런 관계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때문에 Olson 등(1983)은 의사소통을 촉매차원으로 다루었다.

2. 순환모델을査定하는 척도들

순환모델을査定하는 척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적 시각을 보는 자기 보고식 척도인 FACES와 외적 시각을 측정하는 CRS(Clinical Rating Scale)가 있다. 그 중 자기보고식 척도인 FACES는 문장해독이 가능한 자녀와 부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용 척도이며 5점 리커트 응답 방식의 척도이다.

1979년 최초로 개발된 FACES I 은 1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리커트 응답방식으로 극단 수준과 적절한 수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ACES II는 1982년 50개 문항으로 개정되었고, 응집 16문항, 적응 14문항의 30문항으로 압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FACES II의 결함은 첫째 응집과 적응은 서로 수직으로 교차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응집과 적응간에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r=.65$; Olson, Porter & Lavee, 1985). 둘째 응집에 자율성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Olson이 처음에 정의한 응집은 가족원들이 서로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체계안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자율성 정도였다. 그러나 Beavers와 Voeller(1983)는 가족체계의 응집과 개인의 자율성 개념간에는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응집은 곡선적 개념인 반면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과의 관계에 분명한 경계를 구성하는 선형적인 개념으로 순수한 응집의 개념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Bowen(1978)과 Minuchin(1974) 역시 자율성과 응집은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지적에 따라 Olson 등(1983)은 응집의 정의에서 자율성의 개념을 제외시키고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응집과 적응의 상관을 없애기 위해 미국 전국을 표집 대상으로 하여 수정·보완한 척도가 FACES III이다. FACES III는 모두 20문항으로 응집 10문항, 적응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ACES III는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과 가족체계에 대한 이상향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각한 점수와 이상향 점수간의 차이로서 가족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데, 두 점수간의 차이가 클수록 가족 만족은 감소한다고 본다. Olson (1985)은 FACES III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 (social desirability) 및 응집과 적응의 상관을 극복한 우수한 척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FACES III 역시 경험적 검증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가장 강력히 제기되는 문제점은 FACES II와 마찬가지로 FACES III의 선형성이다. 특히 FACES III의 적응 척도는 선형적 문항과 비선형적 문항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융통성 발휘, 함께 결정을 내림, 권력의 공유, 새로운 방법 모색과 같은 적응 문항은 가족 만족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응집 척도에서도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결정할 때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차원으로 가족 기능과 선형적으로 관련된다는 주장이 있다(Lee, 1985). 이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연구로는 FACES III 척도의 선형성 검증(김득성, 김수연, 1993; Hampson, Hulgus & Beavers, 1991)으로, 선형성에 대해서는 유의적이었으나 선형이탈에 대해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Noller와 Shumm(1990)은 요인분석 결과 FACES III가 응집과 적응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적응 척도의 협동과 변화 그리고 응집이라는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총 설명변량: 37.4%). 김득성과 김수연(1993)은 적응 척도의 일부 문항은 곡선성을 지녔고 그외 나머지 적응 문항과 응집은 선형성이 강한 척도라고 하였다. 즉 순환모델의 개념 정의는 1차적 변화의 개념인 반면 측정은 1차적 변화의 개념과 2차적 변화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Lee, 1988).¹⁾

1) 가족의 역동적 변화는 두 가지 수준에서 볼 수 있다. 1차적 변화(first-order change)는 일정한 가족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너무 많은 변화나 너무 적은 변화는 문제가 있다는 곡선적인 개념이다. 2차적 변화(second-order change)는

FACES척도의 선형성은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그 외의 선형적인 척도와 비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Hampson, Hulgus 및 Beavers(1991)의 Beavers 모델과 순환모델 비교, Miller, Epstein, Bishop 및 Keitner(1985)의 McMaster 모델을 측정하는 FAD와 FACES II의 비교, Pratt과 Hansen(1987)의 FACES II, III와 양측 응답 척도인 Beavers의 Self-Report Family Inventory의 비교(FACES II, III의 매몰, 혼돈의 극단 점수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되는지 아니면 건강한 가족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검증), Perosa와 Perosa(1990)의 FACES III와 Family Assessment Device (Epstein, Baldwin 및 Bishop, 1983), Family Environment Scale(Moos와 Moos, 1981) 및 Structural Family Interactional Scale(Perosa, Hansen 및 Perosa, 1988)과의 비교 연구에서 순환모델은 선형성 척도와 상관이 존재하였다. 이는 순환모델을 측정하는 FACES II와 III가 선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순환모델의 응집과 적응 차원은 건강한 가족 기능과 선형적인 관계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FACES II와 III는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을 제대로 조작화 해주지 못하며, 특히 유리와 경직은 측정할 수 있으나, 매몰과 혼돈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Olson(1991)은 FACES III의 선형성을 인정하면서 FACES III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3차원 순환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응집과 적응의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극단 가족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순환모델의 개념적, 임상적, 방법적인 면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하였지만 응집과 적응이 극단적으로 과다한 수준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Perosa와 Perosa(1990), Pratt과 Hansen(1987)은 FACES척도가 곡선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리커트 응답방식에 있으며, Beavers의 SFI 척도 중 44번 문항으로 곡선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

면서 양측 척도 응답 형식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Olson은 많은 비판에 따라 극단 범주의 조작화가 가능하며 곡선성을 나타내 주는 척도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FACES IV를 개발하였다(Olson, 1994; Tiesel, 1994). 양극 응답 형식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여 양극 응답 형식을 개발하였으나, Eckblad(1993)은 이러한 응답 형식이 응답자에게 곡선성에 대한 전제를 강요한다고 반박하였으며 곡선성을 나타내는데도 실패하였다. 다양한 응답 양식과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문항 개발 등 지속적인 시도를 한 결과, 응집의 유리와 매몰, 적응의 경직과 혼돈을 측정하는 5점 리커트식의 40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Tiesel(1994)은 FACES IV 개발에 참여한 공동 연구팀과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미국 가족치료 협회 회원 500명으로부터 FACES IV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 표본 집단으로부터 문항이 어느 차원(응집, 적응, 의사소통)에 속하며 어느 수준(극도로 과소한 수준, 적절한 수준, 극도로 과다한 수준)인지를 질문하여 표본의 85% 이상이 극단 수준으로 동의한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택된 문항에 대해 구성타당도, 신뢰도 및 기준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지역별 결과의 일치여부를 통한 수렴타당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과의 관계와 극단 수준간의 관계를 통한 판별타당도,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타당도를 구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경직과 혼돈의 문항들은 이론적인 의도대로(내용 타당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유리 요인에는 유리 다섯 문항과 매몰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매몰 요인에는 매몰 아홉 문항과 경직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와 재검사법 신뢰도를 구하였다. 기준관련 타당도를 위해서는 먼저 Beavers의 체계모델을 측정하는 SFI와 McMaster 모델의 측정도구인 FAD와의 상관을 구하고, 다음으로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아

한 체계 유형에서 다른 체계유형으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체계 자체의 변화이며 선형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악몽에 시달릴 때 꿈속에서 불쾌한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1차적 변화이고 그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은 2차적 변화이다. 즉 2차적 변화는 형태의 변이(gestalt switch)가 생기는 것이다(윤순임외 14명, 1995).

올려 임상적 타당도를 위해 임상가족과 비임상 가족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ACESⅣ는 이전의 척도에 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향상된 척도라는 것이다(Tiesel, 199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내 중·고등학교의 학생과 어머니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가족원마다 가족을 보는 관점과 평가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자료 수집의 편의상 어머니와 자녀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산시 12개구 가운데 4개구를 선정하여 2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를 무선표집 하였다. FACES척도가 문장해독이 가능한 자녀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척도의 내용상 적어도 중학교 이상이 되어야 질문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리라 판단되어 중·고등학교 학생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1996년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선정된 각 학교에서 한 학급씩 총 네개 학급을 대상으로 200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총 400부)를 조사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59가족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계 수입은 50만원 미만인 1%,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 11%, 100~150만원 미만인 24%, 150~200만원미만이 26%, 200~250만원 미만이 16%, 250만원 이상이 22%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 기능직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규모 자영업(20%), 사무직(18%), 일반 기술직(9%),

고위 전문직(6%) 순이었다. 어머니는 전업 주부가 58%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 소규모 자영업과 생산기능직이 각각 10%, 서비스직이 7%순이었다.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국졸이 7%, 중졸이 20%, 고졸이 47%, 대졸 이상이 26%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국졸이 13%, 중졸이 27%, 고졸이 50%, 대졸 이상이 10%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간 계층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연령은 어머니가 42세, 자녀가 15세이었다. 부부의 결혼년수는 19년이며 결혼 상태는 초혼의 경우가 96%이며 어머니나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가 4%이었다. 가족생활주기상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확대기 가족에 해당된다.

3. 측정도구

질문지는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과 새로 구성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FACES), Barnes와 Olson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가족화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1) 가족 응집 및 적응 척도

가족의 응집과 적응 척도는 Olson의 가족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FACES) 시리즈 가운데 FACESⅡ의 30문항, FACESⅢ의 20문항, FACESⅣ의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FACESⅡ, Ⅲ, Ⅳ의 문항 가운데 내용이 공통된 문항을 취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은 하나로 통일하였다.²⁾ 국내 연구(김진희, 1988; 유순덕, 1987; 민하영, 1992; 김수연, 1993; 최연실, 1996, 홍성애, 1988)에서 사용된 FACESⅡ, Ⅲ의 질문지들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연구마다 유사하게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연구자 나름대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예: 민하영(1992)-수돗물이나 전기를 아껴쓰자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서로가 이를

2) 예) Family members ask each other for help(FACESⅢ)

번역: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청한다.

Family members are supportive of each other during difficult time(FACESⅡ)

번역: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본 연구에서 채택)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ACES 원안과 가장 근접한 변안을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들을 응집과 적응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Olson의 분류대로 응집과 적응의 차원 가운데 응집과 적응의 정도가 극도로 과소한 수준(유리, 경직), 적절한 수준(연결, 융통), 극도로 과도한 수준(매몰, 혼돈)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분류하였다.³⁾ 극단의 수준은 FACESⅣ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FACESⅢ의 적응 척도 중 Lee(1988), Noller와 Shumm(1990), 김득성과 김수연(1993)의 연구에서 곡선성을 띄고 있다고 밝혀진 문항들(예-우리 가족은 일을 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을 포함시켰다. 극단 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극도로 과소한 수준(유리, 경직)이거나 극도로 과도한 수준(매몰, 혼돈)을 나타낸다. 적절한 수준은 그 외의 FACESⅢ 문항과 FACESⅡ의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들 문항은 선형적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이고 적절한 수준(매우 연결된 수준, 매우 융통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분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응집에서 유리 5문항, 연결 9문항, 매몰 14문항을 추출하였고 적응에서 경직 12문항, 융통 6문항, 혼돈 8문항을 추출하였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4점 리커트식이다. FACES 척도는 5점 리커트식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4점 리커트식을 사용한 이유는 중간값을 없애므로서 보다 명확한 수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2) 의사소통 척도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정유미(1997)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부모용 의사소통 척도로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

녀는 자녀용 의사소통 척도 가운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결과 어머니의 경우 $\alpha = .85$ 이었고, 자녀의 경우 $\alpha = .90$ 이었다.

3) 가족화목 척도

이 척도는 Kinnaird와 Gerrard(1986)의 가족분위기 척도(Family Atmosphere Questionnaire)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일체감, 가족내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가족의 화목 정도의 6문항이다. 어머니의 경우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의 일체감, 가족내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가족의 화목에 대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화목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어머니의 경우 $\alpha = .79$ 이고, 자녀는 $\alpha = .74$ 이었다.

4. 자료분석

1) FACES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① 각 문항의 문항반응율을 통한 편도분석을 하였다.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응답 범주에 90% 이상 응답한 문항을 제외시켰다.

② 순환모델에 근거하여 응집 및 적응의 문항들 내용에 따라 세가지 하위 수준(극도로 과소한 수준, 적절한 수준, 극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나누어 각 문항과 하위 척도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r = .20$ 이하인 문항은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시켰다.

2) FACES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3) 각 유형 문항의 예

유리: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일에만 신경쓴다.

연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매우 가깝게 느낀다.

매몰: 우리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경직: 우리 가족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융통: 우리 가족의 규칙은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

혼돈: 우리 가족은 전혀 기강이 잡혀있지 않다.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응집과 적응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측정하는 개념이 실제 이론적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는가를 말한다(Kerlinger, 1988). 즉 이론적 적합성에 의해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으로(김경동, 이은숙, 1988), 응집과 적응이 이론대로 하위 수준으로 묶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수준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응집과 적응의 양 극단의 두 수준은 상반된 수준이며 다른 성질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수준과 극단 수준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② 응집 및 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통해 기준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준 관련 타당도는 경험적 타당도 평가로서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그 척도의 타당도를 가늠하는 것이다(김경동, 이은숙, 1988). 즉 서로 상이한 대상에 대한 척도의 판별 능력 정도를 다른 척도와 관련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의사소통과 가족화목은 가족기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응집과 적응이 적절한 수준(연결, 융통)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응집과 적응이 극도로 과소한 수준(유리, 경직)과 극도로 과다한 수준(매물, 혼돈)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검증을 위해 상관 분석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최종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를 위해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로 Cronbach의 α 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문항 양호도

1) 편포분석

우선 각 문항의 응답 반응율을 구하여 문항의 응답빈도가 긍정적이거나(다소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 부정적인(다소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범주의 어느 한 쪽에 90% 이상 해당되는 문항을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1>과 같다.

응집에서 연결에 해당하는 5번 문항은 긍정적인 응답 범주에, 유리에 해당되는 11번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 범주에 90% 이상 편중된 응답을 보였다. 적응에서는 혼돈에 해당되는 29번과 32번 문항이 부정적인 응답범주에 90%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여기며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가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한국의 가족 문화는 상부상조와 단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제 의식이 강하여 지도력을 잃은 혼돈된 가족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문항분석

① 응집

응집에 해당하는 문항을 내용에 따라 유리, 연결, 매물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여 문항분석을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유리의 14번과 매물의 13, 26번 문항은 상관이 낮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항과 상관계수는 구체적으로 <표 2>와 같다.

② 적응

적응에 속하는 문항을 경직, 융통, 혼돈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여 문항분석을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 융통의 42번, 경직의 33번, 44번, 51번, 35번과 혼돈의 36번 문항이 제외되었다. 그 중 35번은 자녀의 경우만 상관이 .20이하이었으나(어머니: $r=.23$), 어머니와 자녀 양쪽의 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하기 위해 함께 제외하였다.

2. 구성 타당도

1) 요인분석

문항 양호도 검증을 거쳐 추출된 문항들이 응집과 적응의 세가지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절차는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수와 scree-test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

〈표 1〉 문항의 편포분석

문 항	문 항 내 용	응 답 빈 도	
		어머니	자녀
응 집 5번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돕는다.	91.8%	91.2%
11번	우리는 서로 마주치기를 꺼린다.	90.0%	95.6%
적 응 29번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	94.3%	93.1%
32번	우리 가족은 자녀를 통제할 힘이 없다.	92.4%	95.0%

〈표 2〉 응집의 문항분석

문 항	문 항 내 용	상 관 계 수	
		어머니	자녀
14번	우리 가족은 각자 매우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19	.19
26번	집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든다	.07	.09
13번	가족의 다른 친구가 있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8	.04

〈표 3〉 적응의 문항분석

문 항	문 항 내 용	상 관 계 수	
		어머니	자녀
42번	집안 일을 분담하며 자기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19	.20
33번	우리 가족은 생활방식을 전혀 바꿔보려고 하지 않는다	.15	.02
44번	우리 가족은 가족문제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지 않는다	.05	.01
51번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15	.13
35번	일을 처리하는 올바른 방식은 오직 한가지 뿐이다	.23	.13
36번	우리 가족은 일을 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20	.17

정하였다. 그 결과 응집은 두개의 요인으로, 적응은 세개의 요인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응집

어머니의 경우 두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34.4%를 설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1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4.2%를 설명하였고, 유리에 해당되는 세 문항, 연결에 해당되는 모든 문항, 매몰에 해당되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 요인은 여섯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0.2%를 설명하며, 모두 매몰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경우 두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3.4%를

설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1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4.1%를 설명하였고, 유리에 해당되는 세 문항과 연결에 해당되는 모든 문항과 매몰에 해당되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 요인은 여섯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9.3%를 설명하며, 모두 매몰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은 동일하였다. 요인 1에 포함된 매몰의 문항을 보면 「우리 가족에서는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8번),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 모두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6번), 「가족 중 한 사람이 불안해지면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된다(7번)», 「우리 가족은 지나칠 정도로 친밀하다」(4번), 「우리 가족은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다」(25번)로서 FACES IV에서 매몰에 속하는 문항들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 문화에서는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론상 유리에 해당되는 세 문항이 요인 1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요인 부하량은 부적인 값임을 알 수 있다. 즉 유리에 해당되는 것을 역으로 환산하면 연결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두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부적인 부하량의 유리 요인과 정적인 부하량의 연결 요인으로 구분하고, 요인 2는 매몰 요인으로 하여 응집을 세계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응집의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와 자녀 모두 세계의 요인으로 유리 3문항, 연결 14문항, 매몰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② 적용

어머니의 경우 세계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40.3%를 설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표 4〉 응집의 요인 행렬표

어머니			자녀			
문항		요인 1	요인 2	문항	요인 1	요인 2
		유리·연결	매몰		유리·연결	매몰
22	여가시간을 함께 보냄	.72	.06	1	.73	.22
9	함께 활동하기를 즐김	.71	.29	24	.68	.14
24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공유	.63	-.05	22	.67	-.07
20	공동의 일, 대화 공유	.61	.08	*3	-.66	.16
28	가족의 단란은 중요	.61	.22	20	.64	.24
1	친밀하게 느낌	.61	.03	*18	-.59	.11
16	결정시 가족과 의논	.59	-.15	21	.58	-.08
17	가족의 결정을 따름	.58	.04	16	.57	-.08
21	가족 행사에 참여	.56	.13	*19	-.56	.13
*19	가족의 사람과 의논	-.55	.32	9	.55	.03
6	가족이 문제 해결에 개입	.54	.04	6	.55	.11
12	친구 인정	.48	.06	17	.54	-.06
7	불안해지면 모두가 불안	.43	.16	25	.51	.11
4	지나친 친밀	.43	.18	4	.46	.20
*3	전혀 친하지 않음	-.41	.30	12	.43	.11
25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음	.38	-.06	28	.42	.10
*18	각자의 일에만 관심	-.37	.03	7	.46	.04
27	지나치게 매여 있음	.02	.72	27	-.05	.72
15	서로의 생활에 간섭	-.08	.71	15	-.20	.63
2	숨이 막힐 것같은 느낌	.05	.53	2	.18	.62
23	함께 지내는 시간의 과다	-.18	.51	8	.17	.39
8	의존적인 관계	.34	.51	23	.20	.37
10	가족외부인의 접촉에 분노	.33	.48	10	-.15	.37
고 유 치		5.7	2.3	6.2		2.1
변량백분율		24.2	10.2	24.1		9.3

〈표 5〉 적응의 요인 행렬표

어머니				자녀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혼돈	경직	융통		경직	융통	혼돈
41 가족 규칙 부재	.74	-.05	.01	49	.78	-.14	.17
48 결과에 대한 상벌 부재	.59	.18	-.19	50	.76	-.11	.09
43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56	-.06	-.06	47	.60	.18	.04
53 가족의 기강이 없음	.48	.39	-.18	40	.58	.01	-.24
*54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음	.43	.45	-.20	38	.56	-.08	-.44
52 조직적이고 딱딱함	-.12	.67	-.09	37	.55	-.06	-.43
50 계획 변경이 곤란	-.04	.58	-.15	52	.51	.47	.05
49 정해진 일의 변경이 어려움	-.23	.57	-.12	46	.39	-.10	.01
38 모든 상황에 대한 규칙화	-.26	.55	.29	30	.06	.75	.11
40 규칙 위반에 따른 처벌	-.33	.53	-.09	31	.08	.62	.34
37 규칙 엄수	-.29	.48	.32	45	-.01	.62	-.28
46 일 처리에 대한 완벽성	-.18	.48	.36	34	-.00	.58	-.33
47 잘못된 일은 처벌 대상	-.09	.47	.14	39	.31	.50	.21
31 자녀 교육에 자녀의 의견 반영	-.08	.03	.82	48	.09	.15	.61
30 자녀의 의사결정 참여	.04	.06	.74	43	.05	-.06	-.59
34 문제시 새로운 해결책 고안	-.08	-.10	.53	*54	.21	-.55	.53
45 문제의 만족한 해결책 도달	-.33	-.10	.51	53	-.17	.34	.43
39 상황에 따른 규칙 조절	.17	.27	-.31	*41	-.50	-.06	.42
고유치	3.6	2.7	1.5		3.8	3.3	1.6
변량백분율	18.2	13.9	8.2		20.1	17.2	8.9

18.2%를 설명하며, 모두 혼돈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54번 문항은 요인 부하치가 요인1과 요인2에 비슷하게 걸려 이론대로 요인1이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본다. 두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3.9%를 설명하며, 경직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요인2는 경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8.2%를 설명하며, 모두 융통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경우 세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6.2%를 설명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0.1%를 설명하였으며, 경직에 해당되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7.2%를 설명하며, 모두 융통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8.9%를 설명하며 모두 혼돈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1번과 54번 문항은 요인 2와 요인 3의 요인부하량이 비슷하므로 혼돈 요인에 포함시켰다.

적응의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와 자녀 모두 세가지 요인으로, 경직 8문항, 융통 5문항, 혼돈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 상관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응집 및 적응의 하위 수준이 변별력있게 구분될 수 있는가와 응집과 적응 차원의 직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응집과 적응 차원은 극도로 과소한 수준-적절한 수준-극도로 과다한 수준의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응집의 경우 유리와 매물은 한 차원의 양 끝이고 연결은 그 중간에 위치하므로 이들

〈표 6〉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 상관계수

	어						자					
	유리	연결	매물	경직	융통	혼돈	유리	연결	매물	경직	융통	혼돈
유리	1.00						1.00					
연결	-.47**	1.00					-.65**	1.00				
매물	.06	-.21*	1.00				-.08	-.24	1.00			
경직	.13	-.14	.37**	1.00			.20	.02	.32*	1.00		
융통	-.18	.53**	.02	-.19	1.00		-.46**	.63**	.01	-.17	1.00	
혼돈	.25*	-.27**	.08	-.19	-.30**	1.00	.23*	-.43**	.05	-.14	-.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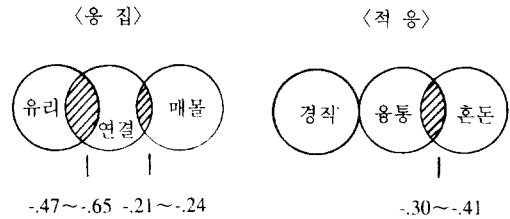
* P < .01 ** P < .001

하위 수준간에는 어떤 종류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기능적인 수준인 연결은 역기능적인 수준인 유리, 매물과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극단 수준인 유리와 매물은 상호 상반된 수준으로 전혀 다른 역동성을 가지므로 이론적으로 상관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두 극단의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표 6〉에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 응집에서 유리-연결, 연결-매물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리-매물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적응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 융통-혼돈간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경직-융통, 경직-혼돈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국 응집에서 유리와 매물 그리고 적응에서 경직과 혼돈 양 극단 수준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양극단 수준은 상호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동시에 척도의 판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응집의 경우 두 극단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연결을 매개로 관련되어 있다. 적응의 경우 경직-융통간에는 비록 유의하지 않았지만 약한 상관(-.17~-19)이 있었고, 융통-혼돈간에는 유의한 상관(-.30~-41)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응집과 적응은 각기 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다.

다음으로 응집과 적응의 직교 검증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유리-혼돈, 연결-융통, 매물-경직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결-혼돈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녀의 경우 유리-융통, 연결-혼돈 간



〈그림〉 응집과 적응의 단일 차원성

에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유리-혼돈, 연결-융통, 매물-경직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상관의 방향을 보면 응집과 적응의 적절한 수준간의 상관관계와 극단 수준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이었고, 적절한 수준과 극단 수준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이었다. Tiesel(1994)의 연구에서도 유리-혼돈($r=.51$), 매물-경직(.49)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Tiesel(1994)의 연구에서는 매물-혼돈(.34)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혼돈-경직(.06), 유리-매물(-.07), 유리-경직(.02)에서는 비록 유의한 수준이긴 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3. 기준 관련 타당도

1)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과 가족기능과의 상관 분석

〈표 7〉에서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보면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 모두 기대했던 대로 극단 수준은 가족기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절한 수준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극단 수준 가운데

〈표 7〉 응집 및 적응의 하위 수준과 가족기능간의 상관계수

	어머니		자녀	
	가족화목	의사소통	가족화목	의사소통
유리	-.37**	-.24*	-.60**	-.44**
연결	.54**	.39**	.61**	.46**
매물	-.02	-.10	-.13	-.04
경직	-.10	-.07	-.11	-.14
융통	.36**	.46**	.49**	.37**
혼돈	-.30**	-.43**	-.21*	-.30**

* P < .01 **P < .001

유리와 혼돈은 가족 화목 및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매물과 경직은 가족기능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매물과 경직은 이론상 역기능적인 가족으로서 가족 기능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관분석 결과 매물과 경직은 가족 기능과 관계가 없었다. 응집에서는 유리와 연결이, 적응에서는 융통과 혼돈이 가족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극단 수준의 경향은 Tiesel(1994)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비록 Tiesel의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긴 하였으나 매물과 경직의 상관(-.11~-.16)은 매우 약했으며, 유리와 혼돈은 의사소통 및 가족만족과(-.57~- .73)의 뚜렷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2)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 가족기능

응집과 적응의 하위 수준별로 각 문항의 응답 범주 중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례(예: 3문항으로 구성된 유리의 경우 9점보다 높은 사례)를 택하였다. 이 집단들은 응집의 경우 매우 유리, 매우 연결, 매우 매물된 집단으로서, 각 하위 수준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들의 가족기능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 하위 수준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Olson의 곡선적 가설대로라면 연결된 집단은 가족기능 점수가 높고, 유리나 매물된 집단은 가족기능 점수가 낮아야 한다.

일원변량분석 결과(표 8 참고) 응집에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 연결 집단의 가족화목과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고, 반면 유리와 매물 집단은 낮았다. 적응에서도 어머니와 자녀 모두 융통 집단의 가족 화목과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는데 비해, 경직과 혼돈 집단은 낮았다.

4. 신뢰도 검사

최종적으로 구성된 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유리가 $\alpha=.61$, 연결이 $\alpha=.85$, 매물은 $\alpha=.63$ 이었고, 자녀의 경우 유리는 $\alpha=.61$, 연결은 $\alpha=.84$, 매물은 $\alpha=.64$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경직은 $\alpha=.68$, 융통은 $\alpha=.64$, 혼돈은 $\alpha=.63$ 이었고, 자녀의 경우 경직은 $\alpha=.75$, 융통은 $\alpha=.73$, 혼돈은 $\alpha=.67$ 이었다. 비교적 문항수가 적은 유리, 매물, 융통, 혼돈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응집과 적응의 모든 하위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나아가 순환모델의 곡선성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FACES II, III, IV를 종합하여 척도를 재표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집은 유리, 연결, 매물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결 요인에는 이론적으로 매물에 해당되는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적응은 경직, 융통, 혼돈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척도는 응집의 경우 유리 3문항, 연결 14문항, 매물 6문항이었고, 적응의 경우 경직 8문항, 융통 5문항, 혼돈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응집과 적응의 차원은 적당한 수준을 매개로 양 극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극단 수준은 서로 상관이 없었으며 이는 척도의 극단 판별 능력을 나타낸다. 아울러 응집과 적응의 직교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8〉 응집과 적응 하위 수준별 가족기능

어머니		가족화목					의사소통					
	유형	N	평균	F값	Scheffé	유의도	N	평균	F값	Scheffé	유의도	
응집	유리+	11	14.9		a		11	56.7		a		
	연결+	62	20.4	14.7	b	.0001	64	63.4	3.7	b	.05	
	매몰+	16	17.5		c		18	58.9		a		
	적응	경직+	14	15.7		a		14	54.7		a	
		융통+	64	20.3	11.2	b	.0001	67	65.4	24.1	b	.0001
		혼돈+	11	17.4		a		19	54.8		a	
자녀												
응집	유리+	12	17.9		a		20	47.9		a		
	연결+	39	24.2	26.2	b	.0001	39	54.7	10.9	b	.001	
	매몰+	14	19.8		a		14	52.1		a		
적응	경직+	15	19.9		a		12	50.2		a		
	융통+	41	24.0	8.5	b	.0005	39	55.4	9.5	b	.0005	
	혼돈+	13	20.7		a		12	50.9		a		

셋째, 응집의 유리와 연결, 적응의 융통과 혼돈이 가족기능과 상관이 있었다. 또한 극단 수준보다 적절한 수준의 가족이 기능적이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응집 및 적응 척도는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위의 결과에 대한 몇가지 논의와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 요인에 5개의 매몰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한국 가족에서는 가족간의 단란함, 친밀함, 시간의 공유,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가족 한 사람의 불안이 나머지 가족에게도 전달되는 경향 등이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매몰된 가족의 압박감이나 억압같은 역기능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친밀함이나 돈독한 유대, 일체감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족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응집 수준이 다소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국 가족 연구에서는 위의 문항들을 기능적인 친밀함을 측정하는 연결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Tiesel(1994)은 양 극단만을 측정할 수 있는

FACES IV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 극단이 한 차원임이 확인되지 않아 곡선성 검증이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집과 적응의 세가지 하위 수준을 모두 측정하였고, 각 하위 수준이 하나의 차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일 차원 여부의 확인은 곡선성 검증 이전에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Tiesel, 1994)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응집과 적응의 곡선성 검증을 위한 충분 조건을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응집과 적응의 직교 가설은 지지되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선행연구(Lee, 1988)에서도 계속 지적되어왔다. Lee(1988)는 응집과 적응의 직교가 어려운 이유를 의사소통에 두고 있다. 응집과 적응의 문항 가운데는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결정을 내린다」와 같은 문항은 다분히 의사소통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두 차원간의 상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 유형에서 유리-혼돈, 매몰-경직간의 상관은 본 연구와 Tiesel(199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별개의 차원으로 다루기 보다는 응집과 적응의 상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체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

으며, 모델의 중심 개념이 순환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Beavers의 체계 모델이 있다. Beavers는 응집을 원심성/구심성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유리/매몰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원심성/구심성의 가족 유형은 순환모델과는 달리 그 자체가 어떤 기능의 적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응이라는 능력(competence)을 나타내는 개념과 결합될 때 가족 기능의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응집과 적응 차원을 별개의 차원으로 다루기 보다는 응집과 적응의 상관이 높은 수준을 함께 묶어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유형들의 특성과 가족역동성을 밝히는 것이 임상적 · 이론적으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연구대상에 임상가족을 포함시켜 척도가 일반가족과 임상가족을 적절히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경동, 이은죽, 사회조사 연구방법, 박영사, 1988.
- 2) 김득성, 김수연,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9, 1993.
- 3) 김수연,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4) 김진희,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5)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992.
- 6) 유순덕,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7) 윤순임외 14인, 현대상담. 심리 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 출판사.
- 8) 정유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9) 최연실, 가족 적응력 ·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996.
- 10) 홍성애, 가족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1) Barnes, H.L., & Olson, D.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1985, 437-447.
- 12) Beavers, W.R., & Voeller, M.N. Family model: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Family Process* 22, 1983, 85-98.
- 13) Beavers, W.R. & Hampson, R.B. *Successful Families*, Norton & Company, 1990.
- 14) Cluff, R.B., Hicks, M.W., & Madsen, J.C.H., Beyond the Circumplex Model: 1. A moratorium on curvilinearity. *Family Process* 33, 1994, 455-470.
- 15) Eckblad, G.F., Commentary: The "Circumplex" and curvilinear function. *Family Process* 32: 1993, 473-476.
- 16) Galvin, K.M. & Brommel, B.J.,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 change*, 2nd Edition. Scott: Foresman & Company, 1986.
- 17) Goldenberg, I., & Goldenberg, H., *Family Therapy an overview*,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8.
- 18) Hampson, R.B., Hulgus, Y.F. & Beavers, W.R., Comparison of self-report measures of Beavers system model and Olson's Circumplex Model. *Journal of of Family Psychology* 4(3), 1991, 326-340.
- 19) Kerlinger. F.N., 고흥화, 김현수, 백영승역, 사회 행동과학 연구 방법의 기초, 성원사, 1988.
- 20) Kinnard, K.L., & Gerrard, M.,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divorce among young women as a function of their mothers' marital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1986, 757-765.
- 21) Lee, C.,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Toward

-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27, 1988, 73-85.
- 22) Miller, I.W., Epstein, N.B., Bishop, D.S. & Keitner, G.I.,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1985, 345-356.
- 23) Minuchin, S.,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24) Noller, P. & Shumm, D., The couple version of FACES III: Validity and reli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1990, 440-451.
- 25) Olson, D.H.,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1986, 337-351.
- 26) Olson, D.H. *Family types: family stress and family satisfaction: A family development perspective*. In David M, Klein & Jean Aldous, *Social stress and Family Development* N.Y; London. The Guilford Press, 1988.
- 27) Olson, D.H., Commentary: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1991, 74-79.
- 28) Olson, D.H., Commentary: Curvilinearity survives: The world is not flat. *Family Process* 33, 1994, 471-478.
- 29) Olson, D.H., Porter, Lavee, Y.,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Paul; Minnesota, 1985.
- 30)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1983, 69-83.
- 31) Olson, D.H., Sprenkle, D.H. & Russell, C.S.,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1979, 3-28.
- 32) Perosa, Z.M. & Perosa, S.L., The use of bipolar item format for FACES III.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 1990, 187-199.
- 33) Pratt, D.M. & Hansen, J.C., A Test of the curvilinear hypothesis with FACES II & FACES III.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3, 1987, 387-392.
- 34) Tiesel, J.W., *Capturing family dynamic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CES IV*.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1994.